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희명이 「도천수대비가」를 지은 까닭은?

1. 어머니와 아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일 미묘한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다. 부권이 상실되거나 경제가 침체된 불황의 시대에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 하지만, 딸은 위기의 터널을 슬기롭게 지나가는 어머니를 재발견하게 된다.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적은 것은 아이 때의 모성애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점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성인 아들을 대할 때와 동성인 딸을 대할 때의 느낌이 미묘하게 다를 것이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되면 친구 관계에 상응하는 딸이 되거나 애증 관계가 형성되는 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어머니는 자신이 애지중지 뱃속에서 열 달을 키워서 낳은 아이가 인체의 한 기능이 갑자기 마비될 때 참혹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거나 귀가 멀게 되거나 또는 말을 못하게 되거나 걷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불교의 삼세유회관이나 인과응보설을 상기하게 된다. 반면 이전 생의 삶의 방식이 이후 생의 삶의 방식과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는 삼세유회와 인과응보의 원리는 순간순간의 삶의 방식을 질적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제의 과거는 흘러가 버려서 내 기억(記憶) 속에 남아있고, 내일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내 예지(豫智)에 의해 파악되지만, 현재는 지금 이 순간 내 인식(認識) 속에서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탐상」의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득안」 조목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을 신고 있다. 지극히 짧은 조목 속에는 노래를 매개로 어머니의 발원(發願)과 천수대비관음의 가피(加被)가 접목되어 있다. 신라인들은 향가(鄕歌)를 오랫동안 불러왔듯이 이 조목 속의 희명(希明) 역시 간절한 기원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있다. 이 노래는 찬사(讚詞)-기도(祈禱)-주사(呪詞)의 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주가(呪歌)적 기능을 가진 향가가 지닌 보편적 형식이기도 하다.

경덕왕 때에 한기리(漢岐里)의 여인 희명이 아이를 낳지 5년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左殿)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千手大悲) 관세음보살 앞에 나아가 '아이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며 빌었다니 눈이 떠졌다고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무릎 꿇고/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축원 올리오니/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졌으니/ 하나 내놓아 하나

덜기름/ 둘 다 없는 저에게/ 하나만 주어 고쳐 주시옵소서/ 아아! 저에게 그리해 주시면/ 자비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양주동역) 이 「도천수대비(관음)가」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렇다. "무릎을 낮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기구(祈求)의 말씀 두노라/ 천(千)개의 손엔 천(千)개의 눈올/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두 눈 같은 나니/ 하나를 숨겨 주소서 하고 매달리누나/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자비(慈悲)라고 크고." (김완진역) 번역자마다 조금씩의 출입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내용은 서로 통하고 있다.

2. 지극하면 통한다
종교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종교는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고 현실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이성의 현실을 해결할 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발휘되는 영험과 기적 현상은 지극함과 가피력을 언어와 논리로 온전히 해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존재한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희명, 아들 눈멀자 노래 지어 분황사 관음보살 영험 보여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 오히려 비가시적이고 비물리적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병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표층세계(의식세계)와 달리 보이지 않는 심층세계(무의식세계)가 더 깊고 넓기 때문이다.

분황사는 선덕왕 3년(634)에 낙성된 신라의 대표적 사찰이다. 이윗한 황룡사와 미탄사와 함께 신라의 만불성 가까운 곳에 나란히 자리한 국가 대찰이다.

이곳은 원효대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절이다. 원효가 입적하자 그의 아들이 설총은 그 유해를 갈아서 생전의 모습과 같이 소상으로 빚어 분황사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예를 올렸다고 전한다. 어느 날 설총이 옆에서 절을 하자 소상이 홀연히 돌아보았다 한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1281)할 때까지 돌아 본 소상이 그대로 있었다고 전한다. 이 절에는 7층이었던 모전(模塹) 석탑이 현재 3층만 남아있으며, 당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한 호국룡이 살았다는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이라는 우물이 있다. 또 이곳에는 날아가던 새도 속에서 앉으려 했다는 신라의 화가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상 벽화가 있었다. 나아가 이 절은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 이곳에 머물며 쟁관법(爭



경주 분황사의 관음보살상

觀法) 수행을 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그리고 분황사의 사비(寺婢)로 있던 광덕의 처는 관음보살 십구(十九) 응신(應身)의 하나였다고 전한다.

천수대비관음(千手大悲觀音)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불교의 대표적 보살이다. 이 보살은 아승기경 이전 이미 성불한 정법명(正法明王)이라 하여 관음여래로 알려져 있다. 서방정토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고도 한다. 나아가 관음과 미타는 한 몸이면서 두 부처님이라고도 일컫는다. 대자대비를 서원으로 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라 33가지 몸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서울 보신각 종을 서른 세 번 치는 것은 바로 이 관음보살의 33응신이 널리 퍼져 중생을 구제하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 자리에 머물며[補處] 중생을 구제하지만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되기를 발원하는 천수행자(千手行者)는 관음보살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에는 적고 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명호(名號)를 일심(一心)으로 지극히 부르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케 할 것이다"고 설한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서의 관음보살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관음보살을 불러내어 우리가 대상으로 부르는 관음보살을 도와주는 것이다. 때문에 바깥에 있는 불보살님께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보살님을 불러내어 '무엇을 하겠습니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불러내어 그것을 문수와 관음과 같은 보살로 인격화하여 스스로 발원하고 서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수보살이 되고 관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즉 「천수경」의 「관음신행」(觀音信行)이 바로 그것

을 말하고 있다. 대상을 통해서 주체를 불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과 주체의 분기는 사라지고 보살행만이 행해지게 된다. 희명은 천수관음과 같은 모성애로 지극하고 간절하게 천수대비관음을 불러내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이다.

3. 「도천수대비가」의 해석

희명의 아이를 눈뜨게 한 이야기는 같은 「탐상」편의 「민장사」 조목에서 나온다. 우금리(禹金里)의 가난한 여인 보개(寶開)에게는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던 장춘(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장춘이 장사꾼을 따라 바다로 떠난 지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 어머니가 민장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7일을 정성껏 기도하였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동안 일에 대해 물으니 장춘이 말하였다.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동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자신만 판자 한 쪽을 타고 오나라 해변에 닿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저를 데려다 밭을 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낫신스님이 마치 고향에서 온 듯이 위로하며 저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는 깊은 개울을 만나자 저의 겨드랑이를 끼고 뛰어

<탐상>편에는 난파된 아들 돌아와 모성애와 관음보살 가피 맞닿아

건넌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중에 고향 말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자세히 보니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포시(哺時, 오후 3시-5시)에 오나라를 떠났는데 여기 도착한 것은 겨우 술시(戌時, 오후 7시-9시)였습니다." 경덕왕은 이 소식을 듣고 절에 밭을 시주하고 재물과 폐물을 버렸다고 한다.

다시 「도천수대비가」를 돌아가 보자. 분황사 동쪽 인근에 있는 한기리에 희명(希明)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삼국유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한기리는 신라 귀족의 호화주택인 35 금입택(金入宅) 가운데 하나인 한기택(漢岐宅, 法流寺 남쪽)이 있던 곳이다. 또 일산 급한의 종이 네 쌍둥이를 낳은 곳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 스물 안팎의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남의 집에 고용살이로 곡식 30석을 받아 주인집에 맡겨 두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효종왕(孝宗王)이 비 100석을 보낸 것도 한기리이다.

이렇게 본다면 희명은 한기리에 사는 양인 계층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희명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맥락을 보면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아이가 나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려진 천수대비관음 앞에 나아가 '아아! 하야금 노래를 짓게 하고' [令兒作歌] 기도하였더니[禱之] 마침내 눈을 떴다.

여기서 '명아작가' (令兒作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과연 다섯 살 난 아이가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 서동은 「서동요」를 지은 뒤 서러벌의 아이들에게 마를 주면서 껴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어머니 희명 역시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에게 따라 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노래는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노래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찬(讚詞)과 기도(祈禱)와 주사(呪詞)로 이루어진 「도천수대비가」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무릎을 꿇으며/ 두 손바닥 모아/ 관세음보살 앞에/ 천 개의 손엔 천 개의 눈올/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두 눈 같은 나니/ 하나를 숨겨 주소서 매달리누나"라는 기도(祈禱), 그리고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자비라서 크시옵니까"라는 주사(呪詞)의 구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관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지극 정성 발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고통을 다 들어준다. 보살이다. 아이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를 지닌 희명과 보개(寶開) 그리고 의상의 제자가 된 진정(眞定)법사의 어머니나 불전 앞에서 한순간에 평소 그리던 여인과의 사랑에 빠졌던 조신(調信)을 깨어나 참회하게 한 보살은 모두 관음보살이거나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 중생에 대한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정법명왕여래 즉 관음여래였다. 그 모습과 정신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했던 신라 어머니들의 지극한 모성애로 이어졌고 지금도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애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구려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본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님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띠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